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진짜 엄마
수상내역	인기상
작가	이현경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p>요즘 사회는 아직까지도 계모를 '나쁜 새엄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나쁜 새엄마'는 고작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표면적인 기사 속의 새엄마만이 새엄마의 전부는 아니기에, 조금은 극단적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이처럼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p>

## <단편 창작 시나리오>

### 진짜 엄마

이현경

**주제:** 모든 새엄마가 나쁜 계모는 아니다.

**작의:** 요즘 사회는 아직까지도 계모를 ‘나쁜 새엄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나쁜 새엄마’는 고작 10%가 채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표면적인 기사 속의 새엄마만이 새엄마의 전부는 아니기에, 조금은 극단적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이처럼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등장인물

박소애 (여, 37세)

2년 전, 7살 딸아이를 둔 돌싱남과의 결혼에서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남편과 다정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이혼한다. 다시는 관련되지 않으리라 마음먹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다정의 전화에 모든 것이 흔들린다.

정다정 (여, 9세)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엄마 때문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2년 전, 아빠의 이혼에서도 ‘아빠마저도 날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새엄마의 학대에 다시 소애를 찾게 된다.

우철규 (남, 37세)

소애의 친구. 검사. 친구인 소애의 일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우매한 모습을 보인다.

정준형 (남, 41세)

출장이 잦다. 딸을 아끼지만 사실상 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새엄마 (여, 34세)

다정을 학대한다.

## S# 1. 몽타주

- 검찰청

승강기 앞. 텅-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문이 열린다.

양 문의 벌어지는 틈 사이,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나는 소애.

소애의 굳은 얼굴, 정면으로 들어온다.

-과거, 공원단지 입구

준형의 손을 잡고 선 다정.

그 앞으로 다가오는 소애, 다정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낮춘다.

낮을 가리는지 준형의 뒤로 숨으려는 다정.

소애, 한 발짝 다가가 다정의 손을 잡아주고 뺨을 쓰다듬어주며 미소 짓는다.

그제 서야 풀리는 다정의 표정. 그 모습에 환한 미소 짓는 소애.

소애(E)        이제 엄마니까, 엄마가 다정이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거야.

-검찰청

승강기 안에서 빠져나오는 소애, 복도로 발을 내딛는다.

-과거, 부엌

다정,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식탁에 앉아있다.

오븐에서 팬을 꺼내는 소애, 다정 앞에 가져다 내려놓는데

내용물을 확인한 다정이 소애를 향해 함박웃음을 터뜨린다.

덩달아 웃음을 터뜨리는 소애. 즐거워 보이는 두 사람이다.

-검찰청

복도 양 옆으로 즐비한 사무실.

그 사이를 지나는 소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문패를 확인한다.

-과거, 현관

현관에 놓여있는 커다란 짐 가방.

그 옆에 선 준형이 불통한 표정의 다정을 안아 올린다.

다정이 바둥거리며 빠져나가려 하자, 결국 준형이 소애에게 다정을 넘긴다.

소애의 품에 안겨 준형을 보지 않으려는 다정.

그런 다정에게 귓속말하는 소애.

다정이 고개를 조금만 돌리고는 준형에게 손을 흔들어 준다.

짐 가방과 함께 문을 나서는 준형.

소애(E)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해야지.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잖아?

-검찰청

소애, 발걸음도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

-과거, 거실

엮어진 동화책과 쏟아진 색연필들이 난무하는 등, 어지러운 광경.  
 머리끝까지 화가 난 소애, 일그러진 얼굴로 다정에게 다가가 호통을 친다.  
 왈칵 눈물을 쏟아내는 다정. 그런 다정의 모습에 더 화가 나는 소애.  
 눈물을 멈출 줄 모르는 다정에 소애, 결국 손을 들어 다정을 내리치려는데  
 화면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준형, 소애를 밀치고 다정을 안아 올린다.  
 소애에게 소리 지르는 준형. 울컥한 소애가 그에 맞받아친다.

-경찰청

급히 복도 모퉁이를 도는 소애.

-과거, 법원 앞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준형의 손에 잡혀있는 다정.  
 준형과 소애는 결국 서로를 등지고 멀어진다.  
 다정, 준형의 큰 보폭에 힘겹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소애를 바라보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소애.  
 준형과 소애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더욱더 다정의 얼굴에 다급함이 묻어난다.

다정(E)        엄마!

## **S# 2. 검찰청, 철규의 사무실 (낮)**

벌컥 문이 열리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소애의 모습.  
 여전히 굳은 얼굴에다 식은땀에 가쁜 숨까지 내쉬는 게, 꽤나 창백해 보인다.

소애를 본 철규, 적잖게 놀란 표정이다.

철규            (소애를 살피며) 너 ... 괜찮아?

소애            (방황하는 시선, 떨리는 목소리)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

소애, 철규를 한 번 쳐다보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사무실 밖에서 안을 비추던 카메라에 포착되는, 닫혀가는 문과 그 위의 문패.

### 문패 - 검사 우철규

한숨 쉬며 소파에 앉는 철규, 그를 따라 맞은편에 앉는 소애다.

철규            그래 그럼, 자료는 좀 가져왔어?  
 소애            (아직 경직된 모습) 일단은 (휴대폰을 꺼내 보인다) 여기, 저번에  
                   말했던 녹음자료야.  
 철규            (휴대폰 받아들고) 정말 이게 전부야? 다른 ... 아이 사진 같은 건  
                   없어?

소애,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규철            이게 ... (한숨) 내가 말했잖아. 충분한 자료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소애            하지만 ... (답답) 내가 아이랑 직접 통화한 이게 그 증거자료잖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다고 ... (휴대폰을 빼앗듯이 도로  
                   가져와) 아니, 말로 할 게 아니야. (휴대폰에 시선고정, 덜덜 떨리는  
                   손) 일단 내가 들어보고 ...  
 철규            (떨리는 소애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소애야 그만 ...

소애, 입을 다물고 조금 놀란 눈으로 휴대폰에서 철규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철규를 똑바로 쳐다보는 소애.

철규            (소애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내 내려놓고) 조금만 더 널 위해서  
                   생각해봐. 그냥 애한테서 전화 온 걸로 감정만 계속 앞세우면 ...  
 소애(OL)        (답답) 그냥 전화가 아니잖아. 지금 애가 .... (기가 찬다, 한숨)  
                   자기가 새엄마한테 학대받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 !  
 철규            (한숨) 정말 나서게 되면 ... 이번 일은 네 손해만으로 끝날 거야.  
 소애            (점점 일그러지는 표정)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따질 수가 ...  
 철규(OL)        (속이 터진다) 2년 전에 네가 네 입으로 말했어. 애초에 정을 주는  
                   게 아니었다고, 이제 그 부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거라고 ... !  
 소애            그건 ....  
 철규(OL)        그리고 그 전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아? 그때 그 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너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제대로 된  
진술조차도 하지 않았어.

소애           아니야 ...

철규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다는 표정, 점점 높아지는 언성) 한동안  
직장도 생활도 모두 놓아버릴 만큼 힘들었던 너니까 제발 이 일에  
나서지 마. 애초에 이런 일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런  
영악한 애가 하는 전화 따위 이제는 ...

소애(OL)      (소리침) 아니야!!

### 잠시 정적

소애           아이가 ... (울먹이며) 다정이가 나쁜 게 아니야.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

철규           그게 무슨 ...

소애           친엄마에게서 버려졌던 아이야. 누군가가 떠나는 게 무서운 아이라고  
...

철규, 이해불가의 눈으로 소애를 쳐다본다.

소애           (답답) 아직도 모르겠어? 아이에게 새엄마인 나와 친아빠인 그 사람,  
둘 중에 누가 떠났을 때 더 무서울지를 ...

철규(OL)      (흥분, 버럭)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이제 와서 네 손에서 벗어난  
그 아이를 굳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겨우 그런 아이 하나 때문에  
힘들게 진정시켰던 네 마음을 다시 뒤엎어 놓겠다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소애.

철규           (씩씩거리며, 소애의 눈치를 보며) 도대체 ... 말이 되는 소리를 ...

소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내리고, 호소하듯) 그 애가 ... 다시  
엄마라고 불러줬어 ... 울면서 ... 보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

철규, 소애의 그런 모습에 아무 말도 잇지 못한다.

소애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일단 먼저 들어봐 줘 ... 자칫하다간  
정말 큰일 날 수도 ... !

그때, 명랑한 휴대폰 벨소리(E)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고개 드는 두 사람, 서로의 눈이 마주친다.

### **S# 3. 다정의 집, 거실 (낮)**

강도가 든 것같이 난장판인 거실.

꺼진 형광등 아래, 커튼 너머 비쳐 들어오는 햇빛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다.

다정(E)          엄마?

어지러운 거실 속에 홀로 서있는 다정.

카메라가 다정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 올리자,

먼지를 뒤집어쓴 온 몸에, 수화기를 꽉 쥐고 있는 시꺼멓게 된 작은 손,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차례로 보여 진다.

다정              (조심스럽게) 엄마 ... 예요?

### **S# 4. 검찰청, 철규의 사무실**

긴장감이 흐르는 사무실 안, 경직된 두 사람.

소애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가다듬으며) 다, 다정이니?

다정(F)          엄마 맞아요? 지금 전화 받아도 괜찮아요 ... ?

소애              (침 한 번 삼키고) 그럼 괜찮지-. 다정이 왜? 또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 **S# 5. 다정의 집, 거실**

다정              다정이가 엄마를 보고 싶기도 하지만 ... 혹시 엄마가 다정이 더 보고 싶진 않을까 해서 전화했는데 ... 엄마는 언제쯤 와요 ... ?

소애(F)          아 ... 다정이가 빨리 엄마 보고 싶구나 ... ?

### **S# 6. 검찰청, 철규의 사무실**

소애              엄마가 좀 더 빨리 만나러 가면 좋겠어요?

다정(F)          네! 아, 그런데 ... (눈치) 아니, 그게 아니라 ... 엄마가 빨리 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을까 해서 ... 그러니까 ...

그때, 철규가 소애를 보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소애 (미안함) 저기 ... 그런데 다정아. 엄마가 다정이를 만나러 가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 (철규의 눈치를 한 번 보고)  
집에 아빠 안 계셔? 또 출장 가셨니?

### **S# 7. 다정의 집, 거실**

다정 (시무룩) 응 ... 아빠 없어요 ... 아 그럼, 엄마! 언제 또 ...

적막한 집안에서 울리는 철컹- 하는 소리.  
말을 멈추고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정,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된다.

덜컹 하더니, 곧이어 열리는 현관문(CU)

### **S# 8. 검찰청, 철규의 사무실**

휴대폰 너머로, 퍽- 하면서 곧바로 물건들이 앞질러지는 소리가 전해진다.  
그 바람에 놀라 당황하는 철규와 사색이 되는 소애.

소애 (안절부절못하며) 다정아? 다정아!!

전화 너머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고, 곧 정적이 된 사무실.  
호흡이 가팔라지는 소애와 그런 소애를 천천히 손짓으로 달래려는 철규다.

새엄마(F) (악에 받쳐서) 네가 미쳤지!!

### **S# 9. 다정의 집, 거실**

새엄마 (흥분해서 다정의 뺨을 내려지며) 미친년! 지금 어디다가 전화를  
해?

그러고는 새엄마, 있는 힘껏 한 번 더 다정의 뺨을 후려친다.  
그대로 나가떨어지는 다정.

새엄마 어디 잠깐 나갔다 오지도 못해 내가. 니년 눈치 본다고! 어? (냉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일어서려는 다정을 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어디 영악한 게 전화를 찾아내서는 ... 이렇게 네  
아빠한테 다 일러바쳐왔니? 아니면, 다 늙어빠진 네 할머니한테야?

새엄마, 다시 다정을 내려치려는데 ... 수화기 너머로

소애(F) (울먹이며 애원하는 목소리) 그만 ... ! 그만 ... !!

멈칫하는 새엄마.

소애(F) 당신 누구야 ... 뭐하는 거야? (울음 섞인 외침으로) 다정이 어디  
있어!

다정 (울음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하이톤으로) 엄마!!

### **S# 10. 검찰청, 철규의 사무실**

새엄마(F) (비웃으며) 뭐야 ... 이거 지금 ... 전차야? (어이없어서 헛웃음) 이  
여자가 엄마라고? 애새끼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친 듯이 웃다가)  
미쳤어!!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물건 쏟아지는 소리와 잇따른 통화종료 알림음(E)

소애 (울며, 다급하게) 다정아? 다정아!!

### **S# 11. 다정의 집, 거실**

새엄마 (냉소 뽐 얼굴) 넌 내가 우습지?

순식간에 다정의 먹살을 잡아채, 던지듯이 다정을 밀어버리는 새엄마.  
쏟아지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는 다정, 뒷걸음질 친다.

### **S# 12. 주차장**

차에 올라타는 철규와 소애.

철규 (어디론가 통화하며) 예, 형사님 지금 바로 그쪽으로요. 네.

**S# 13. 다정의 집, 다정의 방 앞**

새엄마           (정색) 너한테 엄마가 어디 있어?

새엄마, 위협적으로 다정에게 다가간다.  
저절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다정.

새엄마           말해봐. 네 엄마는 어디 있니?

계속해서 내몰리는 다정, 어느새 불 꺼진 자신의 방 앞까지 다다른다.

**S# 14. 차도 위**

창백해진 소애를 결눈질로 보가면서 급하게 운전하는 철규, 더 속도를 낸다.

**S# 15. 다정의 방**

다정의 뺨을 내려치는 새엄마.  
다정, 돌아간 고개를 바로하고 다시 새엄마를 향하는 눈,  
공포감이 잔뜩 서려있다.

새엄마           넌 엄마 없어. 버려진 주제에 어디서 엄마를 찾아?

새엄마, 다정의 옷장 문을 열고 다정을 던지듯이 안으로 밀어 넣어버린다.

새엄마           네 아빠도 관심 없고 ... 어차피 아무도 널 안 찾으니까 ... 그냥 여기  
박혀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씨익 웃는다)

다정이 소리지르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자,  
새엄마, 옷걸이를 꺼내들고 다리와 팔을 마구잡이로 내려친다.

새엄마           (찢어지는 하이톤으로) 들어가!! 내 눈에 거슬리지 말라고!!  
들어가!!!

**S# 16. 주택 골목 (해질녘)**

골목으로 진입하는 경찰차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철규와 소애의 차.

**S# 17. 다정의 방 → 집 밖**

다정, 두 눈이 풀리고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인다.

새엄마        잘 좀 박혀 있어봐. 다신 나오지 말고.

새엄마, 다정이 있는 옷장 문을 그대로 닫아버리고  
태연하게 핸드백을 매며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선다.  
마당을 돌아, 뒤쪽 구석에 위치한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새엄마,  
유유히 골목 안으로 사라진다.

**S# 18. 다정의 방**

어두운 옷장 안의 다정.  
홀로 오돌오돌 떨어져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새엄마(E)    넌 엄마 없어. 네 아빠도 관심 없고 ...

**S# 19. 다정의 집**

집 앞, 드디어 도착한 경찰들과 우철, 소애.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넘어가는 경찰들이다.

집 안, 어둡고 ... 무지막지하게 어질러져있다.  
말단 경찰 하나가 전등 스위치를 만져도 반응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형사        (다급) 여기 ... !

다정의 방 앞에 형사, 옷장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춘다.  
눈에 초점이 없고 어떠한 미동도 없는 다정.

그때, 갑자기 경찰들과 형사들을 뚫고 들어와 다정을 끌어안는 소애.  
하지만 다정, 소애의 품에 안겨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다.

소애 (덜덜 떨며, 하지만 굳센 목소리로) 괜찮아. 엄마야 ... 괜찮아 ...

화면, 다정의 시선으로 바뀐다.

온통 깜깜하고, 형체가 없는 밝은 빛들이 뚱뚱 떠다니는 그런 모습.

새엄마(E) 너한테 엄마가 어디 있어? 버려진 주제에 ... 버려진 주제에 ... !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다정.

소애,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만 지지 않으며 다정을 으스스하게 끌어들인다.

소애 (눈물 흘리며) 다정아 엄마야 .... 엄마야 엄마! 다정아 제발 ... 제발 ... (다정의 등을 연신 끌어내리는 소애)

그때, 차단기가 올라가 밝아지는 집 안.

그리고 그제 서야 다정의 경기가 찾아지고,

제대로 꺾꺾 거리는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는 다정.

다정 엄마 ... 엄마 ...

다정의 목소리를 들은 소애,

입가에 안도에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다정을 놓지 않고 토닥여준다.

형사 (경찰들을 향해) 상황 종료!

경찰들이 철수하고, 곧이어 소애와 다정에게로 다가오는 119 구조대.

진이 빠진 듯, 방문에 기대어 소애와 다정을 바라보는 철규와

119가 건넌 담요를 씌우고 다정을 안아 올리던 소애의 눈이 마주친다.

철규(E) 양육권도 없고 피한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학대라 하더라도 친권이 없는 네가 나설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거라고.

소애(E)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아이한테서 엄마인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다정을 안아 올린 소애가 철규를 지나치며 집 안을 빠져나가고,

그런 소애의 뒷모습은 카메라에게서 점점 멀어져간다.

**end**